

MERITZ 메리츠화재

홀트아동복지회에 사랑의 우리 농산물 전달

메리츠화재는 6월 4일 1사1촌 자매결연을 한 금사2리에서 생산된 우리 농산물을 홀트일산복지타운에 전달하고, 장애우들의 목욕과 청소를 도왔다. 이번에 전달된 쌀, 참외,



표고버섯 등은 현지에서 막 수확된 신선한 농산물로 300여 명 홀트타운 장애인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고, 1사1촌의 자매결연지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되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2007년부터 메리츠화재 임직원들이 매달 홀트에 방문하여 장애인들을 위한 목욕, 식사, 청소, 치료활동 등을 돕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농산물도 후원할 수 있게 되어 참 뜻 깊다"며, "앞으로 정기적으로 자매결연 마을의 농산물을 전달하여 홀트 가족들이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건강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영업 10년 만에 보험왕으로 두 번째 등극

메리츠화재의 FY2008 '보험왕'에 안양지점 남미순 FC(38세, 女)가 선정되었다. FY2005부터 실시된 메리츠화재 연도대상에서 최초의 보험왕으로 선정된 이후 두 번째 영예를 안은 남미순 FC는 지난 한 해 신계약 1,132건에 수입보험료 24억 6,000만 원으로 최근 8년간 개인영업에서 최고의 실적을 올리고 있는 메리츠화재의 대표 FC이다.



입사 10년 만에 단골 고객만 1,000여 명에 2,500명을 훨씬 웃도는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남미순 FC는 "이제는 업계 최고의 '보험왕'을 하고 싶다"는 포부와 함께 "나도 누군가를 보고 시작했듯이 보험영업이든 다른 일이든 자기를 보고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수상소감을 대신했다.

한화손해보험

신상품 '무배당 카네이션 | Love보험' 출시

한화손해보험은 태아부터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한 번 가입으로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각종 의료비를 평생 보장받을 수 있는 '무배당 카네이션 | Love보험'을 새로 개발, 6월 4일부터 시판에 들어갔다.



카네이션 | Love보험은 '30세 만기' 등으로 제한된 자녀보험의 보장기간을 100세까지 확대하였다. 3,000만 원 이상 고액 진료비 환자 수 증가 추세에 부응해 '입원의료비 1억 원, 통원의료비 1일당 30만 원(5,000원 공제)'의 의료실비 보상한도를 유지하였으며, 선천성 뇌질환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천성질환 관련 담보를 보장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의료비 보장범위를 확대하였다.

카네이션 연도대상 시상식 개최

한화손해보험은 5월 14일 저녁 제주 한화콘도에서 수상자와 임직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FY2008 카네이션 연도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대전



RO 한밭브랜치 최병숙 설계사(FC)가 분상 대상을 수상, '보험왕'에 오른 것을 비롯하여 신인부문 부산RO 부산브랜치 김종호 FC, 리크루팅 부문 호남RO 이레AM사업소 유빈 대리점, 온라인자동차보험 부문 이수정 씨 등이 각 부문별 대상을 수상했다. 보험왕을 차지한 최병숙 FC는 2005년과 작년에도 이어 올해 세 번째로 대상을 수상하는 저력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번 대상 수상에는 본인의 실적뿐 아니라 리크루팅을 통해 새로 14명의 후배 직원들을 입사시키고 이들이 FC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거둔 실적이 큰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일자리 창출의 모범으로 평가받고 있다.

롯데손해보험

창립 63주년 기념식 거행

롯데손해보험은 5월 20일 창립 63주년을 맞아 본사 및 수도권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사 21층 교육장에서 창립 기념식을 거행하였다.



이날 김창재 대표이사는 기념사를 통해 “금융위기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매출 1조 원 달성, 안정적 재무 구조 구축 및 사업영역 다각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준 임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2009회계연도에는 제2의 창립정신으로 변화라는 기치 아래 21세기 손해보험업계 역사를 새로 써 나갈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2008회계연도 부·지점별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시상을 비롯하여 우수사원, 장기근속자 등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롯데손해보험2018 비전 수립 사전행사 실시

롯데손해보험은 5월 11일 본사 21층 교육장에서 전 임원과 부서장, 본사 과장급 이상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롯데손해보험 2018 비전 수립 사전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2018 비전 수립 사전행사는 2018 롯데그룹 비전선포에 따른 회사의 중장기 전략 수립 및 경영혁신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롯데손해보험은 향후 4개월 동안 비전 수립, 전사전략 수립, 부문전략 수립 등의 3단계를 통해 비전을 수립하고 그룹 비전 및 핵심가치와 연계하여 실행할 계획이다.

그린손해보험

FY2008 연도대상 개최

그린손해보험은 5월 19일 워커히호텔에서 FY2008 연도대상 행사를 개최했다. 대상을 차지한 대구지점 최양숙 HRC를 비롯한 100여 명에게 부문별 시상을 가졌다.



최양숙 HRC는 보험을 시작한 지 10년 만에 대상을 수상했다. '긍정과 성실함'을 바탕으로 고객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상담하고,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고객의 건강은 물론 고객의 노후와 삶의 질을 위해 철저한 고객관리와 자기관리로 보험왕을 차지했다.

이날 행사는 'NICE 2009' 라는 테마로 더 영광스런 FY2009를 그린손보와 영업가족 모두가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아 다양한 볼거리와 이벤트를 준비해 1년 동안 고생한 영업가족들에게 기쁨을 선사했다.

'건달들' 마라톤대회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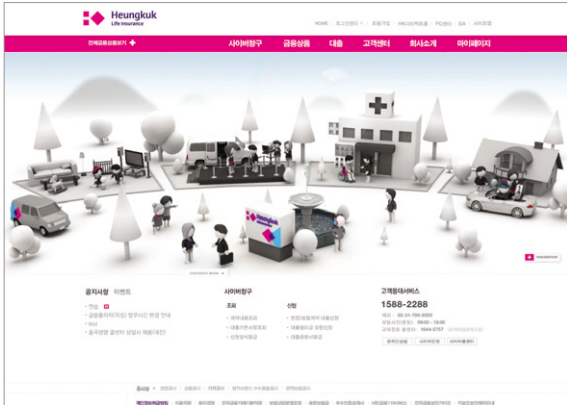
마라톤 동호회 '건달들'은 지난 5월 16일 '제5회 한중일 금융보험인 마라톤대회'에 참가했다.



이번 대회는 전날부터 계속 내린 비와 제법 쌀쌀한 날씨에도 2,000여 명의 참가 신청자 대부분이 참가해 달리는 즐거움을 함께 나눴다. 봄기운을 받으며 이날 행사에 참석한 '건달들'은 평소 꾸준히 키워온 체력을 바탕으로 전원 완주하는 기쁨을 누렸다.



3D 애니메이션 활용한 독특한 홈페이지 선보여



흥국화재가 금융사 최초로 3D 애니메이션 기법을 활용한 홈페이지(www.heungkuklife.co.kr, www.heungkukfire.co.kr)를 5월 20일 흥국생명과 동시에 선보였다. 흥국금융가족 출범 1주년을 기념해 '생활 속의 흥국'이라는 주제로 개발된 이번 홈페이지는 무엇보다 친근한 디자인 구성과 고객 중심의 편리한 UI가 특징이다.

이번에 개편된 흥국생명과 흥국화재 홈페이지는 생활 속에서 흔히 겪는 상황을 3D 애니메이션으로 제작, 고객들이 한편의 애니메이션을 재미있게 감상하며 원하는 상품을 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흥국금융가족의 문화예술 활동을 한눈에 볼 수 있는 'Art of Heungkuk' 등 다양한 콘텐츠를 대거 보강해 고객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이버 문화공간을 마련했다. 흥국화재는 "이번 개편에 이어 지속적인 온라인 비즈니스 센터(Business Center)의 기능 강화와 사이버 마케팅 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온라인 고객만족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흥국화재는 홈페이지 오픈을 기념하여 일주학술문화재단과 함께 사진 공모전 이벤트를 개최한다. 총 1,300만 원의 장학금과 경품이 준비되어 있는 이번 이벤트는 6월 경 양사 홈페이지와 일주학술문화재단 홈페이지(www.iljufoundation.org)를 통해 공지된다.



호남RO 김금희 팀장 4년 연속 '보험왕' 등극

제일화재는 5월 15일 오후 2시 수안보 한화콘도에서 150여 명의 임직원과 영업가족이 모인 가운데 2008회계연도를 총결산하는 연도대상 시상식을 가졌다.



최고의 상 '보험왕 진(眞)'에 호남RO(Regional office, 지원단) 무등브랜치 김금희(43) 씨가 선정되었고, 보험왕 선(善)과 미(美)는 강남RO 나정선(41) 씨와 김영희(45) 씨가 각각 차지했다.

18억 원의 보험계약 실적과 약 3억 원의 연소득을 올린 바 있는 김금희 씨는 대학졸업 후, 제일화재 설계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지난 18년간 발로 뛰는 영업스타일을 고수하며 '정도 영업'으로 지역 내 공단 대표들을 철저히 관리, 영업실적을 쌓았다. 회사 영업조직 육성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임직원, '한화이글스 경기 응원행사' 개최

제일화재와 한화손보 임직원 250명은 지난 22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한화이글스와 LG트윈스와의 경기를 함께 응원하며 한가족으로서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야구장 지정석에 나란히 배석한 양사의 임원진과 본사팀장, 직원 등 240여 명은 한화금융네트워크가 새겨진 막대풍선을 흔들며 한화이글스를 응원했다.

한편 제일화재는 6월 중, 부산과 광주, 대전, 대구, 인천 등 5개 광역시 RO와 보상직원들이 참여하는 '이글스 응원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 글로벌 서비스』개시



삼성화재는 1일 국내에서의 '무사고 및 법규 준수 경력'을 미국에서도 인정받아 자동차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 글로벌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시작한다. 이에 따라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고객이 미국에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약 20% 정도 할인받게 된다.

이를 위해서 삼성화재는 지난 2월 19일에 미국 「파머스 인슈어런스 그룹(Farmers Insurance Group)」과 업무제휴를 맺었다. 이 회사는 총자산 규모 224억 달러(2007년 말 기준)의 미국 대형 보험사이고 한국 교민이 많이 살고 있는 서부의 캘리포니아주 및 워싱턴주 등에서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글로벌 서비스』는 미국으로 이주하기 직전 3년 이상 동안 교통사고를 낸 적이 없고 교통법규를 잘 준수한 운전자 중 직전 2년 연속 삼성화재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제공된다. 이에 따라 정부·기업체의 주재원,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이민자 등이 미국 파머스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경우, 국내 '무사고 및 법규 준수경력'을 미국에서도 인정받아 약 20%의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단, 미국 각 개별 적용기준에 따라 할인율은 상이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삼성화재 인터넷 홈페이지나 본사 및 지역 업무센터에서 「글로벌 서비스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파머스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교통사고 비상처리팀 운영

2002년 한일월드컵,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담 등 세계적 행사에서 단독으로 특별보상서비스팀을 운영했던 현대해상 자동차보상서비스팀이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6월 1일부터 제주도에서 진행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대한 지원활동을 펼쳤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의 정상 및 관료, CEO 등 3천여 명의 귀빈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행사이다. 현대해상은 사고조사 및 보상처리, 환자구호, 통역요원 등 총 33명으로 구성된 교통사고 비상처리팀을 구성해 지난 5월 25일 발대식을 갖고 행사장 및 숙소 주변 이동보상서비스, 비상대기, 사고현장출동 및 응급조치, 긴급출동서비스, 긴급의료지원 서비스 등을 수행했다.



FY2009 경영전략 세미나 개최

지난해 영업을 포함한 각 부문의 실적을 되돌아보고, 올 한 해 경영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현대해상의 FY2009 경영전략 세미나가 지난 5월 8일과 9일, 곤지암 하이비전센터(연수원)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 이철영 대표이사는 지난해 회계연도 경영방침과 관련해 수치화된 성과 및 FY2009 경영방침을 발표했으며, 서태창 대표이사는 총평을 통해 목표 초과달성과 매출신장세 기조 유지, 조직육성 강화, 손해율 관리, 투자수익 증대 및 사업비 절감, KCSI 전 부문 및 NCSI 1위 달성 등의 사항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앞서 지난해 4/4분기 및 연도평가 시상식이 진행됐다.





LIG 손해보험

척추측만증 아동 지원 확대

LIG손해보험은 5월 14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세이브더칠드런과 'LIG희망나눔기금' 전달식을 갖고, 척추측만증 아동 의료비 지원을 위해 약 3억 3,000만 원의 기금을 전달했다. LIG손해보험 김우진 사장과 국준호 노조위원장, 세이브더칠드런 김노보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전달식에서, LIG손해보험은 2008년 1년간 모은 LIG희망나눔기금 약 3억 3,000만 원을 척추측만증 아동 치료비 지원을 위해 세이브더칠드런 측에 전달했다. 이 기금을 통해 약 1년 반 동안 33명의 아동이 척추측만증 교정수술을 받고 새로운 삶을 되찾을 수 있었으며, 올 해부터는 그 규모를 더욱 확대해 척추측만증 수술비용은 물론 사전 예방을 위한 보조기구까지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보험으로 희망을 찾는 사람들' 발간

LIG손해보험은 보험을 통해 희망을 되찾은 고객 사연들로 엮인 사례집 《보험으로 희망을 찾는 사람들》을 발간했다. 창립 50주년을 맞아 제작한 사사 'LIG손해보험 50년사'의 별책으로 발간된 것으로, 그 제목처럼 불의의 사고와 재난으로 인해 삶이나 일터가 큰 위기에 처했던 개인 또는 법인고객이 가입해 두었던 보험에 힘입어 재기한 22편의 실제 고객 사연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어렵게 노점을 운영하면서도 혼자 키우는 손녀를 위해 보험만은 가입하겠다는 할머니의 이야기, 제조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전 직원에게 보험가입을 선물한 어느 중소기업 사장의 이야기, 교통사고 가해자로 몰렸다가 보상직원의 노력으로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던 한 운전자의 이야기 등 모두 보험의 가치와 필요성을 되새겨 볼만한 이야기들이다.



동부화재

일반보상서비스 보험업계최초 ISO9001 인증 획득

동부화재가 국제인증 Network인 IQ-NET으로부터 「일반보상서비스 품질경영시스템 ISO9001」 인증을 보험업계 최초로 획득했다. ISO9001은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등의 일반보험과 일상생활배상책임 등 장기재물보험 가입고객에 대한 보상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며, 동부화재는 이번 인증을 통해 일반보상서비스에 대한 국제적인 수준의 보상 및 서비스 품질을 인정받았다. 동부화재가 취득한 ISO9001 인증은 회사 업무프로세스의 절차와 방법을 품질 매뉴얼과 절차서 등으로 문서화했는지,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규정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고객만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활동을 하고 있는지 등에 관한 엄정한 심사를 거쳐 그 우수성을 인정받은 회사에 한해 수여됐다.



제3회 동부화재 보험상품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동부화재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3회 동부화재 보험상품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이 5월 12일 대치동에 위치한 동부금융센터에서 진행했다. 보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번 공모전에는 참신한 상품 아이디어 400여 건이 대거 출품되었다. 대상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중상해 관련 위헌판정 등과 관련하여 교통사고, 일반상해 등의 중상해를 보장해주는 중상해 민형사 종합보험을 출품한 박정일 가 선정되어 300만 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번 공모에 참여한 상품 아이디어는 창의성, 실현 가능성, 시장성, 논리성 등 4개 기준에 따라 3차에 걸쳐 엄정하게 심사하였다.